

책 거품을 없애라

박홍규

영남대 교수·법학

“만일 책이 우리 머리에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책을 왜 읽는가?”라고 스물두살의 카프카는 썼다. “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맵소사! 우리는 책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책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쓸 수도 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불행과 같은 작용을 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살과 같은 작용을 하는 책을 필요로 한다. 책은 우리들 마음 속 얼어붙은 바다를 짚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나는 그 카프카보다 두 배나 나이가 많으나, 그동안 도끼이긴커녕 솜방망이도 아닌 몇 권의 책을 냈기에 참으로 부끄럽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미지근하고 달콤한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이 나라의 지식산업에 발을 담그는 자체가 카프카를, 아니 스스로를 모독하는 줄 잘 알지만, 나는 그래도 주먹질 흉내라도 내보고자 글을 썼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아예 거품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나는 글 한 편을 쓰면서 수많은 참고문헌을 뒤졌는데, 왜 그렇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많은지 참으로 놀랐다. 남이 이미 한 얘기를 왜 중탕삼탕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도 오랜만에 책다운 책을 읽으면 정말 좋다. 최근에 읽은 그런 책이 훗타의 《고아》이다. 십여년전 그 원서를 읽고 ‘그래, 이것이 바로 책이다’며 감동한 바 있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류 대중영웅소설과 같은 ‘로마인 이야기’ 따위의 거품이 아니라 시대를 치열하게 산 진보적 지식인이 십여년의 준비 끝에 낸 천쪽이 훨씬 넘는 《고아》는 글쓰는 사람에게 하나의 모범이다. 특히 며칠간 어느 나라에 다녀와서 가벼운 말장난을 해대는 거품 기행문들이 판을 치는 우리의 출판계에 충격이길 바란다.

그래서지 나는 역사후기가 좀더 상세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저자는 문헌이나 이론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간의 삶 전체를 오랜 현장답사를 통해 각고하여 최근 유행하는 글쓰기에 모범이 된다. 《고아》를 쓰면서도 그는 한 장의 그림을 보고자 수많은 나라를 다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아는 그의 반성적 유럽론, 성찰적 근대론을 집대성한 것이었고, 아울러 현대에 예술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진지한 답이었다. 번역은 기술이 아니라 연구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독자를 위한 상세한 역주를 붙여야 한다.

그래도 우리말 《고아》 번역은 유려하다. 최근 저명한 어느 영문학자의 소설번역이 오역이라든가 유명한 출판사들이 중복 번역출판을 했다든가 하는 보도가 있었다.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거품을 불리일으키는가? 오역문제는 최근 그 소설이 영화화된 것을 노리고 줄속 번역을 한 탓은 아닌가? 중복문제도 저작권문제가 없어서 경쟁번역을 한 탓은 아닌가? 책을 쓰고 짚는 것도 여차피 상업행위니 그런 얇은 상술을 나무랄 수 없을지도 모르나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기본이 없이 거품으로 살다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닐까? 저술업이나 번역업, 출판업도 이제 거품을 빼고 제대로 장사를 해야 한다. 책 거품을 없애라! ♦

초점	2	더 이상의 도매상 연쇄부도는 막아야 한다 - 한기호 출판계 공멸 위기에 긴박한 움직임
선언문	5	새 대통령과 국민에게 드리는 출판인들의 호소
출판계 소식	3	'출판금고' 새 이사장에 김낙준씨·외
기획 취재	4	출판계에도 '뼈 깎는' 구조조정 바람 6 날개 돋친 종이값, 책값마저 들먹 7 불황 풍랑 속에 학술지들 '일업편주'
집중 취재	8	먹구름 낀 기업, 출판지원은 가뭄 학술·출판지원 예산 대부분 동결
앙케트	10	"청소년에게 권하는 우리 출판사의 책" 길벗/책세상/또하나의문화/동녘/푸른나무/ 서해문집/서광사/폴빛/실천문학/사계절/우리교육
출판화제	16	경기침체 속 열기 띠는 창업관련서 17 인간의 악마적 본성, 그 비밀을 벗긴다
가상대담	18	'공손한 테러리스트' 스테판 말라르메를 찾아서 - 황의조
만화	19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이달의 출판광고	20	불황기에 돋보이는 알뜰한 광고전략
연재 에세이	22	"아름다운 서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 이광주 사본 공방에서 윌리엄 모리스까지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24	골품제로 출발한 신라사회사 연구 - 이기동
서평	26	가버·이승용 《테리다와 비트겐슈타인》 - 이정우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 정진홍 27 셸러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 - 진교훈 마페졸리 《현대를 생각한다》 - 현택수 28 김문환 《문화경제론》 - 김광명 한국사회사학회 《한국 현대사와 사회변동》 - 박노영 29 최응·김봉중 《미국의 역사》 - 김연진
이 책 그 사람	30	《그 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펠넨 도종환씨 《나는 천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 펠넨 박철화씨 31 《사회로 보는 조선역사》 펠넨 이덕일씨 《나는 지금도 그 악어가 그림다》 펠넨 박인식씨 32 새 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다시 보는 사진집 ④